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3년 2월 12일
제1935호

주 임 신 부 : 김태진 베네딕토
사 도 회 장 : 강세원 바오로
사 무 실: 703 968 3010
주 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sthasang@gmail.com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팩 스: 703 968 3013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루카 1,46-47)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 5,17.20)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다〉, 제임스 티소트 作

연중 제6주일 (가해)

제 1 독 서 **집회 15,15-20** |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

화 답 송 **시편 119(118)** | ◎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제 2 독 서 **1코린 2,6-10** |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 음 **마태 5,17-37 〈또는 마태 5,20-22ㄴ.27-28.33-34ㄴ.37〉**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 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27 '간음해서는 안 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33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 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37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Do not swear at all; not by heaven. Mt 5,34

✝복음 묵상

나라를 잃고 성전도 없던 수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회당에 모여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 전례의 중심은 언제나 토라(율법)였습니다. 바룩 예언서에는 이스라엘이 복된 백성이며 그것은 자신들이 토라, 곧 "하느님의 명령과 길이 남을 율법을 기록한 책"(4,1)을 통하여 "지혜의 길"(3,27)을 가르쳐 주신 하느님을 알고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그들의 특별한 자부심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말씀을 참으로 존경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매료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릴 적부터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율법을 들어 익히셨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당시의 율법 학자들이나 라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잊고 인간의 구원과 사람의 선익을 구하지 않는 이른바 '문자에 얽매인 해석'에 골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계명을 통하여 그 법을 선물로 주신 하느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이 온전하게 유효함을 인정하시면도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완전성에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마태 5,48 참조). 예를 들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만드신 사람을 다른 사람이 해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마라.'는 율법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자기 형제에게 해가 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만든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봉사하고 그를 섬기며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참생명의 길 밖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 이르기까지 하느님 말씀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당대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어느 라삐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죽을 때까지 결코 여인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규정과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걸어가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지침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속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기를,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정용진 요셉 신부〉

MY SOUL Rejoices IN THE Lord

2023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ishop's Lenten Appeal) **지원 프로그램**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구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여정의
두번째 해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기쁨에 가득찬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복되신 동정 마리아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온 존재로 무한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2023년 주교님의 사순시기 사목 보조비(BLA) 주제는
성모님의 **"예"**를 묵상하며, 교구 희년 두 번째 해 주제,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나니" (루카 1,46-47) 라는
말씀과 함께 합니다.

기쁨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 안에서 매일 축복을 나누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함으로써,
완전한 모범이신 복되신 성모님을 본받고자 합니다.
성모님은 기쁨과 신뢰와 섬김의 본보기이십니다.

BLA 지원은 교구 전체에서 자선 및 영적,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제공합니다.

올해도 기도와 희생의 마음으로 약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어려운 이웃의 삶을 도와주고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알링턴 교구장 마이클 버빗지
Michael F. Burbidge

알링턴 교구 황금 희년 준비 **두 번째 해** 기도문

"기뻐하라"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당신을 통하여 말씀이
사람이 되셨나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당신을 복되다 하며
기뻐하나이다.

황금 희년 축제를 준비하며
저희가 당신의 아드님 말씀을 받아들여
하느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며
당신과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당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1 2차 헌금 안내

- 이번 주일에는 알링턴 교구 신문 발행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재의 수요일 미사 안내

- 일시 : 2월 22일(수) 오전 10:30 – 십자가의 길, 11시 – 미사, 오후 7:30 – 미사
- 미사 중에 재의 예식이 있습니다.
- 지난 해 성지주일에 나누어 드린 성지 가지를 2월 19일(일)까지 본당 입구에 마련된 성지 가지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체장 회의

- 일시 : 2월 12일(일) 오전 11:30 (A-1,2)

4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2월 12일(일) 오후 12시 (하상관 #4)

5 사도 임원 회의

- 일시 : 2월 17일(금) 오후 8시 (A-1,2)

6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2월 19일(일) 오전 11:30 (B-3,4)

7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2월 19일(일) 오전 11:30 (A-1,2,3)

8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2월 19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

9 2023년 학생 견진 성사반 신청

- 대상 : 7학년 이상
- 등록기간 및 장소 : 23년 2월 5일(일) – 2월 26일(일) (하상관 주일학교 교무실)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10 2023년 바오로딸 성경학교 1학년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월 19일(일) 오전 11:30 (하상관 #110)
- 대상 : 1학년 신입생 등록자 전원
- 문의 : 이성근 에밀리아 (703) 827-1932

11 하상 성인학교 2023년 봄학기 안내

- 일정 : 3월 14일(화) - 6월 16일(금)
- 등록 : 2월 26일(일), 3월 5일(일), 3월 12일(일) 오전 8시,10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금 : $60(점심 없음)
- 안내서 및 신청서는 주보대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 율리아나 (703) 217-2775

2023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실천하고 있는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를 미사 중에 약정받습니다.

▷ BLA 기금은 교구 전체에서 자선 및 영적,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BLA에 기도와 희생의 마음으로 약정해 주시길 청합니다.

▷ 여러분의 약정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삶을 도와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 나누어 드린 봉투에 약정하신 후 나가실 때 성당 입구 BLA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 2월 23일(목)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 평일 **새벽 5시 30분**에 **십자가의 길과 미사**가 봉헌되며, **주일 오후 3시**에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 십자가 복사와 초 복사를 해 주실 분들은 **입구 게시판 밑에 원하는 요일**에 이름을 적어 주세요.

◆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후문**을 이용해 주시고, 주차는 **하상관 주차장 앞쪽 라인**(입구 쪽과 도로 쪽 주차 금지)과 **성당 앞쪽 라인**(주택가 쪽으로 주차 금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성당 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차량 방향을 성당 쪽으로 해 주시어 **차 불빛이 주택가를 향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잠금장치에 삐익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특별히 하상관 쪽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2월 5일(연중 제5주일)

봉헌금	$ 6,121.00
교무금	$ 14,240.00
교무금(신용카드)	$ 5,790.00
감사 헌금	$ 440.00
2차 헌금	$ 6,739.00
온라인 봉헌	$ 14,065.00
합계	**$ 47,395.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2월 16일(목) 오후 5:00 – 6:00
2월 17일(금) 저녁 8:00 – 9:00
2월 19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강 :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창조적 반응하기' (2)
– 김인호 루까 신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일미사에 주보를 보신 후 자리에 놓아 두지 마시고 꼭 가져가 주세요
- 화장실과 세면장을 우리 집처럼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 장소와 물건 사용 후 꼭 원 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 성전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교황님의 2월 기도 지향 | 본당들

본당들이 친교를 중심으로 하여 더욱더 신앙과 형제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